

## 인천시민의 특성별 지역정체성 비교

### 최 병 목\*

이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목적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총 613명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교차통계분석 및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천의 정체의식은 세 집단 모두 낮으며,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렇다는 중용의 의견이었다.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을 응답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높으며, 3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수입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관리·사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생산·농업직 종사자들의 정체의식이 높았다. 전문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기부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천을 마음붙이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이 높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인천은 “주인의식이 없음”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의 “포용력”, “선구적 개혁정신”,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세계의 관문도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핵심단어: 정체성, 정체의식, 애향심, 상징적 사회, 합중시(合衆市)

\* 인천발전연구원

## 1. 머리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와 각 지역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들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면에서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정주의식이나 애향심 또는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은 누구인가와 같은 연구들은 시도된바 있었으나 이런 개념들은 정체성이라는 큰 개념의 일부 또는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학자는 Erik Erikson(1968)으로 Identity: Youth and Crisis라는 책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의 정체성을 말하였다. 아이들이 자랄 때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등에 관한 의문을 가지며 자기 스스로가 자기관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위 논어에 나오는 뜻을 세운다고 할까, 입지(立志)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체는 자기관이 없으면 정체혼란(Identity Diffusion)이 생기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며, 일도 잘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긴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는 개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문화적 정체감까지 집단적 자기의식으로 발전되어 쓰이게 되었다(Giddens, 1991; Lunt & Livingstone, 1992, pp. 24-25). 물론 한국인이 갖는 습관, 김치, 깍두기, 짬신 등도 정체성이 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성은 “인천이라는 도시와 사람을 잘 대표하는 특성들에 대한

1) 「우리말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정체(正體)’란 낱말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본디의 참모습, 참된 형태, 본체(本體), 변하지 아니 하는 본래의 몸, 본마음, 또는 본심의 모양” 등으로 기술되어 있고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영어로는 Identity가 우리말로는 정체성, 신원의식, 주체성, 또는 정주의식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쓰이는 말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나 여기서 ‘성’을 떼고 ‘정체’라고 하면 좀더 쉽게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또는 ‘저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어?’라고 물으면 이것도 바로 정체성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마치 영어에서 ‘Who am I’ 또는 ‘Who are we’ 질문과 유사하다.

인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정체성에는 인식이 관여되고 그 인식된 상징들을 사회가 공유할 때 상징적 사회(Symbolic Community)가 생긴다.

인천의 '정체'란 인천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천이 뭐라고 제일 먼저 끄집어 내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천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는 자연지리적으로 붙여진 "서해안에 있는 항구," "항구도시," "서해안에 있는 관문," "서울의 관문도시," "서울 서쪽에 있는 항구도시," "바다," "공해"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도시의 경제 및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Tri-Port의 도시 인천" 또는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개척적인 선구지" 그리고 강화와 연관된 고려시대의 항몽정신 및 서세동점시기의 외세침입사건들과 연관된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이 깃든 도시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넷째는 사회심리적인 요소가 깃든 "인천 잔물," "포용력있는 합중시(合衆市)," "주인없는 도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체성으로 나누어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즉, 인천이라는 도시 또는 지역이 갖는 정체성과 인천에 사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인천의 정체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또한 인천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인천내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인천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대하여 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의견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인천밖에서 인천을 보는 보는 시각은 생략한다.

인천은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추세(인천광역시, 1996)에 비하여, 인천의 삶의 질, 지역문화수준,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추정되고 있고(이윤희, 1997, 5쪽), 인천시민의 정체성도 형성·발전되지 못하여 왔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인천광역시, 1998a 및 1998b, 281-290쪽; 인천광역시, 1997;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인천녹색연합이 최근 인천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천에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문화, 축제, 향토음식, 문화재(이상 각각 90% 이상), 상징물(80%), 장소 등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인천녹색연합, 1998, 11.). 그만큼 인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의 정체성은 인천주민이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거듭 체험해 온 것으로 인천주민 개개인의 심성에 보편적으로 정착되어진 인천주민이 가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성향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통하여 인천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고 인천지역의 상징과 형성된 문화적 구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의 주체는 지역공동체성원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에 의존적인 개발이 아니라, 인천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독자적인 문화적 자족도시로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하여는 인천 고유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지역발전의지를 지역공동체의식으로 결합시켜 동북아거점도시로서의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이연구는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인천시민들은 누구이며, 인천의 정체성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 그룹간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아 인천시민의 능동적 지역발전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 것이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가지를 병행하였다(Garfinkel, 1967). 하나는 인천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인천지역에서 정체성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knowledgeable source person)을 면접하여 일종의 민속학적 접근방법을 택하여 설문내용작성자료와 연구분석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인천관련 문헌들을 참조하여 인천의 역사문화전통에 관한 것들로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인천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우선 인천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1998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였다. 조사대상은 시민단체, 공무원, 및 학생집단이었다. 표본으로 선정한 응답대상은 평범한 일반시민보다는 인천에 애정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을 선택하였으므로 표본방법은 일종의 임의적인 목적표본방법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사회의 방부제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중이다. 인천에 있는 42개 시민단체들도 역사는 짧지만 감시, 고발, 비판기능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거나, 몸을 던져 분쟁해결에 직접개입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천에 대한 관심은 진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표본대상에 참가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지역장학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지역사회봉

사를 목적으로 하는 23개 인천 라이온스클럽과 46개 로터리클럽회원 전원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우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응답회신에 대한 전화독촉을 거듭하여 우편조사를 통한 이들의 설문회수율을 높였다. 공무원은 교육공무원과 일반공무원중에서 직접 설문응답을 받았다. 교육공무원은 우선 인천의 교육행정과 정책수행하는 기관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전문가와 인천에 관한 교육자료들을 연구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내고장관련 교과내용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과학교육연구원 연구사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조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 단기 재교육과정에 등록된 각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온 각급 일반 및 중견직공무원을 설문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은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들과는 또다른 측면의 차별성이 있다. 공무원은 직업인이 되는 절차가 일반직장인과는 다르고, 직장에서의 신분보장에 따른 상대적 직업안정성, 다루는 업무내용, 사회에서의 역할, 재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도 다르다. 다음은 정체성에 관한 미래 인천의 모습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집단을 설문조사대상으로 첨가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우수한 신흥명문 고등학교의 하나인 서인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설문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인천대학교가 야심을 갖고 금년에 새로 시작한 국제대학 신입생 전원을 설문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직접 설문응답을 받았다.

총응답자수는 613명이었다. 그중에 시민단체에서 265명, 공무원은 190명,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및 대학 학생은 158명이었다. 분석에서 무응답자들은 제외하였다. 응답자의 출생지역별 분포를 보면 인천이 37%로 제일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것이 28%, 충청도 12%, 전라도와 경상도가 각각 9%, 강원도, 제주도, 해외 및 이북지역이 5%였다. 이와 같은 응답자의 출생지역별 분포는 1995년 센서스에 나타난 전체 인천인구의 출생지역별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통계청, 1997; 김태현 외, 1998.9). 그러므로 본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대표성이 나름대로 입증된 셈이다.

인천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문제를 잘 알고 관심이 많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14명을 면담하여 얻어진 면담결과 인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자체 정착으로 행정, 경제, 문화의 구심력 확보(문화생활권 및 소비생활의 지역 중심화 정착), 2) 외부유입인구의 세대교체 및 정착화 과정에서 오는 다양성 및 포용력, 3) 문화교육여건의 발전과 변화(a: 시립인천대학교의 출범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현상에서 나타나는 인천지역의 대학교 역할과 기능 회복인식, b: 중등교육의 향

토교육정착노력과 활기), 4) 인천시민들의 문화의식 환경의 변화(a: 인천에서 전통 문화 및 향토사에 대한 관심고조, b: 문학산 훼손과 파괴에 따른 백제유적에 관한 관심, c: 강화도 개발과 선사문화, 단군 및 고려문화, 팔만대장경 등에 관련된 관심, d: 문화시설확충에 대한 요구와 전문성있는 운영요구 점증, e: 인천방송, 인천일보, 향해문화 등 저널의 대중화, f: 문학산, 청량산, 계양산, 갯벌 등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시민적 관심의 공론화, g: 문화사랑회, 시민문화센터, 문화단체 등 모임의 활기 및 지역 문화예술행사중 창작품의 활기)를 들 수 있다(인천발전연구원, 1998). 이상에서 얻어진 정보들은 설문내용작성과 일부 정책대안에서 유용하게 논의될 것이다.

조사내용의 일반사항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지정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천에 대한 의견과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인천에 대한 의견에는 인천이 응답자에게 주는 의미,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 인천거주에 대한 만족여부, 이주여부 및 시기,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위한 특별기금 기부여부 및 자원봉사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래 인천시의 바람직한 상(像), 인천 정체 의식, 총괄적 의미의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백분율, 교차통계분석(카이검증 첨부) 및 다중분류분석(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을 사용하였다. 다중분류분석표에서 효과는 총평균(Grand Mean)에서의 편차로 표현된다. 그리고 각요인들에 대한 비조정된 범주효과 목록,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정된 범주효과, 모든 요인과 공분산에 대한 조정된 범주효과, 그리고 에타와 베타값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다중분류분석에 앞서 우선 인천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천의 정체의식지수 또는 인천사랑지수라는 종속변수를 만들었다.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작적정의(operationalization)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인천 정체 의식지수는 1) 인천에 대한 애함심, 2) 인천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3) 인천 지역문제에 관한 관심, 4)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 5) 인천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에 관한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각각 5점 척도로 묻은 응답을 가지고 만들었다.

## 2. 인천시민의 정체성

### A. 인천시민의 정체의식

인천시민의 정체성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우선 인천시민의 정체성을 측정 한 뒤 이와 관련하여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천시민들의 정체의식을 알아보았다. 정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선이와 김병관(1996, 345-385쪽)의 연구가 있고, 정주의식에 관한 연구는 이윤희(1997)와 전성표(1998)가 있다. 이윤희는 인천의 정주의식 고취방안에 초점을 두었고, 전성표는 울산시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에 중점을 둔 연구였다. 전상인(1998)은 춘천지역의 '전통의 발명' (Hobsbawm, 1983)과 '정체성의 정치'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의 인구이동 경험에 기초하여 지역 정착성을 분석한 최진호(1996, 47-56쪽)의 연구가 있다.

〈표1〉은 5개의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가지고 인천의 정체의식을 알아본 것이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인천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5명중 1명이 갖고 있을 정도일 뿐이고, 주민간의 유대감은 10명중 1명이 있는 것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천에 대한 애향심, 자부심, 주인의식도 6-7명에 1명이 있는 것으로 낮았다. 인천의 정체의식 관련 5개 항목에 따른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간의 응답분포를 보면 학생집단에서 5개 항목 모두에서 제일 낮은 정체의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들의 인천에 대한 애향심, 유대감, 자부심, 주인의식은 모두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 보다 높다. 시민단체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공무원보다 다소 높았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인천은 무엇보다도 인천시민들의 정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시민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나이가 제일 젊은 층인 학생들에 대한 정체의식 고양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B. 인천의 정체성

다음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인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이

〈표 1〉 인천의 정체의식

구 분	학 생		공 무 원		시 민 단 체		전 체	
	N	%	N	%	N	%	N	%
A. 예향심에 대한 평가								
1. 매우 낮다	32	20.3	31	16.5	39	14.9	102	16.8
2. 약간 낮다	39	24.7	38	20.2	55	21.0	132	21.7
3. 그저 그렇다	74	46.8	80	42.6	120	45.8	274	45.1
4. 약간 높다	12	7.6	32	17.0	38	14.5	82	13.5
5. 매우 높다	1	0.6	7	3.7	10	3.8	18	3.0
합 계	158	100.0	188	100.0	262	100.0	608	100.0
B. 유대감에 대한 평가								
1. 매우 낮다	27	17.1	26	13.8	20	7.7	73	12.1
2. 약간 낮다	39	24.7	43	22.9	74	28.6	156	25.8
3. 그저 그렇다	79	50.0	93	49.5	139	53.7	311	51.4
4. 약간 높다	12	7.6	22	11.7	20	7.7	54	8.9
5. 매우 높다	1	0.6	4	2.1	6	2.3	11	1.8
합 계	158	100.0	188	100.0	259	100.0	605	100.0
C.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 매우 낮다	21	13.3	17	9.0	27	10.4	65	10.7
2. 약간 낮다	44	27.8	45	23.9	60	23.1	149	24.6
3. 그저 그렇다	74	46.8	88	46.8	118	45.4	280	46.2
4. 약간 높다	18	11.4	34	18.1	40	15.4	92	15.2
5. 매우 높다	1	0.6	4	2.1	15	5.8	20	3.3
합 계	158	100.0	188	100.0	260	100.0	606	100.0
D. 자부심 정도								
1. 매우 낮다	27	17.2	28	14.9	33	12.6	88	14.5
2. 약간 낮다	59	37.6	32	17.0	67	25.7	158	26.1
3. 그저 그렇다	65	41.4	88	46.8	124	47.5	277	45.7
4. 약간 높다	6	3.8	36	19.1	25	9.6	67	11.1
5. 매우 높다	0	0.0	4	2.1	12	4.6	16	2.6
합 계	157	100.0	188	100.0	261	100.0	606	100.0
E. 주인의식에 대한 평가								
1. 매우 낮다	31	19.6	29	15.3	30	11.5	90	14.8
2. 약간 낮다	45	28.5	44	23.3	81	31.2	170	28.0
3. 그저 그렇다	72	45.6	71	37.6	110	42.3	253	41.7
4. 약간 높다	9	5.7	37	19.6	28	10.8	74	12.2
5. 매우 높다	1	0.6	8	4.2	11	4.2	20	3.3
합 계	158	100.0	189	100.0	260	100.0	607	100.0



질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 있는 분들 14명을 면담하여 얻어진 정보와 인천지역에 관한 문헌들을 읽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인천의 정체성을 7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응답자의 경우 인천은 “주인의식이 없음”(27%)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28%)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의 “포용력”(19%), “선구적 개척정신”(9%),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8%),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7%),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2%), 기타(1%)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인천의 정체성으로 “세계의 관문도시” 또는 “부정적 의미의 짠물”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에 나타난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로는 인천에는 “정체성이 없으므로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주인의식이 없다는 자체가 바로 인천의 정체성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셋째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인천은 주인의식이 없어 이제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네번째는 “주인의식이 없는 만큼 합중시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만큼 포용력이 강한 것”(53%)이 인천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응답집단별로 보면 학생들은 인천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일 우세하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의견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다. 각 응답집단에서 두 번째로 인천의 정체성을 꼽은 것은 학생들과 공무원은 “인천의 포용력”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인천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밖에 세 응답집단중에서 공무원이 인천의 정체성으로 “선구적 개척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학생들은 인천의 정체성으로 “합중시적 다양성”을 높게 간주하고 있다.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과 “긍정적 의미의 짠물”에는 세 응답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다.

<표3>은 응답자가 총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알아 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았다. 남녀 응답자 차이없이 “인천은 주인의식이 없다”고 보는 답변과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제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견해(남자 22%, 여자 37%), 그리고 “포용력”을 갖는 것이 인천의 정체성으로 보는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2〉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인천의 정체성

구 분	학 생		공 무 원		시 민 단 체		전 체	
	N	%	N	%	N	%	N	%
1. 선구적 개척정신	8	5.1	19	10.2	24	9.4	51	8.5
2.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2	1.3	4	2.1	5	2.0	11	1.8
3. 포용력	31	19.7	45	24.1	38	14.8	114	19.0
4. 긍정적 의미의 잔물	11	7.0	16	8.6	23	9.0	50	8.3
5. 합중시적 다양성	16	10.2	11	5.9	15	5.9	42	7.0
6. 주인의식이 없음	19	12.1	56	29.9	86	33.6	161	26.8
7.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	68	43.3	34	18.2	63	24.6	165	27.5
8. 기타	2	1.3	2	1.1	2	0.8	6	1.0
합 계	157	10.0	187	100.0	256	100.0	600	100.0

“긍정적 의미의 잔물”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보는 견해는 남자 10%, 여자 6%였다. 긍정적 의미의 잔물이란 “싱겁지 않다”거나 또는 “규모가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의 정체성으로 “선구적 개척정신,” “합중시적 다양성” 그리고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으로 보는 경우는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인천은 “이제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견해와 “합중시적 다양성”을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많을수록 “주인의식이 없는 점”과 “긍정적 의미의 잔물”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포용력”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보는 것은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 나타난 인천의 정체성을 보는 견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대체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은 “이제부터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응답자들은 “주인의식이 없음”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별로 볼 경우,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주인의식이 없음”과 “선구적 개척정신”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크게 보는 반면 주부와 미취업자들은 인천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관리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하여 “포용력”을 인천의 정체성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판매·서비스·생산직업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은

〈표 3〉 응답자가 총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인천의 정체성

변수	내용	선구적 개척정신	외세에 대한호국	포용력	긍정적 의미의 짝물	합중시적 다양성	주인의식이 없음	이제부터 만들어가야함	기타	소계
성별	남	9.3	2.5	20.4	9.8	7.0	27.4	22.4	1.3	66.7
	여	7.0	0.5	16.6	5.5	7.0	25.6	37.2	0.5	33.3
$X^2=19.161$ $P=0.007$ $N=597$										
연령	20세이하	4.4	1.3	20.8	6.9	10.1	11.9	43.4	1.3	26.8
	20-29세	11.5	0.9	16.8	7.1	6.2	26.5	31.0	0.0	19.1
	30-39세	5.2	2.9	19.2	8.1	6.4	36.0	20.9	1.2	29.0
	40세 이상	10.7	2.0	18.8	11.4	5.4	33.6	16.8	1.3	25.1
$X^2=61.182$ $P=0.000$ $N=593$										
학력	고교이하	8.0	1.2	19.8	10.2	5.6	23.5	31.0	0.6	55.6
	전문대	7.7	2.6	19.2	5.1	6.4	37.2	19.2	2.6	13.4
	대학이상	9.4	2.2	18.3	6.7	10.0	27.8	24.4	1.1	31.0
$X^2=18.432$ $P=0.187$ $N=581$										
직업	전문·관리직	11.0	2.0	9.0	7.0	8.0	35.0	26.0	2.0	17.4
	사무직	8.3	1.6	21.7	8.3	6.3	33.6	19.4	0.8	44.1
	판매·서비스· 생산직	5.5	5.5	20.0	14.5	3.6	23.6	27.3	0.0	9.6
	미취업	4.8	1.2	20.5	6.6	9.6	13.9	42.2	1.2	28.9
$X^2=58.148$ $P=0.000$ $N=574$										
소득	2천만원미만	9.5	2.0	17.1	10.6	7.5	21.1	30.2	2.0	35.2
	2-3천만	6.3	2.0	22.9	7.8	5.4	31.2	23.9	0.5	36.2
	3-4천만	5.7	0.9	19.8	4.7	7.5	34.0	27.4	0.0	18.7
	4천만원이상	10.7	0.0	14.3	10.7	8.9	26.8	26.8	1.8	9.9
$X^2=21.938$ $P=0.403$ $N=566$										
출생지	인천	5.1	0.5	20.9	8.8	6.5	27.9	28.4	1.9	37.0
	인천외	9.0	2.5	17.8	8.2	7.7	27.0	27.3	0.5	63.0
$X^2=9.231$ $P=0.236$ $N=581$										
거주기간	1-9년	8.4	2.8	18.9	8.4	8.4	23.8	28.7	0.7	24.4
	10-19년	6.4	0.9	21.6	8.7	7.3	22.5	32.1	0.5	37.3
	20-29년	13.6	1.0	15.5	7.8	4.9	32.0	24.3	1.0	17.6
	30-39년	1.3	1.3	18.8	7.5	6.3	38.8	23.8	2.5	13.7
	40년 이상	12.2	2.4	17.1	12.2	9.8	31.7	12.2	2.4	7.0
$X^2=33.573$ $P=0.215$ $N=585$										

〈표 3〉 계속

변수	내용	선구적 개혁정신	외세에 대한호국	포용력	긍정적 의미의 썬물	합중시적 다양성	주인의식이 없음	이제부터 만들어가야함	기타	소계
주거형태	자기 집	9.6	2.4	19.6	8.7	7.8	26.5	24.4	0.9	55.3
	전세의 기타	7.1	1.1	18.3	7.8	6.0	27.2	31.3	1.1	44.7
		X <sup>2</sup> =6.189			P=0.518		N=600			
결혼여부	미혼	7.2	0.8	19.7	6.8	8.0	18.5	38.2	0.8	42.1
	결혼	9.4	2.3	17.8	9.6	6.4	33.6	19.6	1.2	57.9
		X <sup>2</sup> =35.363			P=0.000		N=591			
종교	불교, 유교	6.2	2.1	20.6	12.4	3.1	37.1	17.5	1.0	16.3
	예수교	9.6	1.1	21.0	7.4	5.5	25.1	29.5	0.7	45.5
	무교	8.3	2.2	16.2	7.9	9.6	25.0	29.4	1.3	38.3
		X <sup>2</sup> =20.195			P=0.124		N=596			

인천의 정체성으로 “긍정적 의미의 썬물”을 타직업종사자들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차이를 보면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하여 인천에 “주인의식이 없음”을 크게 보고 있다. 반면에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하여 인천의 정체성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머지 인천의 정체성 분류에 따른 응답에는 기혼과 미혼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제시된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차이를 소득수준, 출생지, 거주기간, 주거형태, 종교별로 분석하여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인천은 기준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특성을 갖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체성에 관한 정책대안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 C. 다중분류분석 결과

다중분류분석에 앞서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5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5개 변수간의 상호 상관관계 계수는 적게는  $r=0.44$ 에서 많게는  $r=0.77$ 까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변수와 자부심변수간에 상관관계가 0.77로 제일 높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과 지역주민간의 유대감 변수의

상관계수가 제일 낮았다.

### C-1. 전체 응답자

다음은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분류분석을 통하여 인천정체의식지수를 알아본 것이다(〈표4〉 참조). 모두 10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평균은 13.10점이고,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총설명변량은 11.7%(설명된 변동량 : 870 ; 설명안된 변동량 : 6,538)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므로(listwise deletion) 총분석대상은 515명이었다.

인천정체의식지수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정체의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도 남자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보더라도 20세 이하의 젊은층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가 제일 낮고 30대가 제일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이고 있다. 역시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연령별로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Beta값은 0.28로 제일 높았다.

결혼상태별 인천정체의식지수는 차이가 있다. 미혼응답자의 인천정체의식지수(12.90점)가 단순관계에서는 기혼응답자(13.2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함께 분석에서 고려한 경우에는 그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고, 기혼과 미혼자 간의 인천정체의식지수 점수 차이도 상대적으로 더 커졌으며, 통계적으로도  $P < 0.05$ 에서 유의한 수준에 있다. 즉, 미혼자의 인천정체의식지수(13.77점)가 기혼자(12.64점)보다 높다.

수입정도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면 연평균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관계와 다른 변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연수입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13.73점이고 연수입이 커질수록 차츰 낮아져서 연수입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인천정체의식지수가 12.16점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값은 연수입정도에 따라 차이의 폭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연수입 2천만원이하 : 13.63점 ; 연수입 4천만원이상 : 12.29점).

생활수준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면 연수입변수에서 보인 차이와 마찬가지로

로 응답자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인천정체의식지수의 값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다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 역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응답자의 직업별로 나타난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면 전문·관리직종과 미취업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판매·서비스직과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직과 미취업응답자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다른변수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무직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미취업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1.24점이상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당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뒤따르는 학생응답자, 공무원응답자, 시민단체응답자별 다중분류분석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직업별변수의 Eta값(0.17)과 Beta값(0.08)의 격차가 2배이상나고 있다. 즉, 어떤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지수가 달라지는 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가 직업변수와 사랑지수 두 개 변수를 놓고 볼 때 보다 본분석에서 사용한 다른 9개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보았을 때는 직업변수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반으로 줄어 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정도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의 차이를 보면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낮고, 전문대학졸업자가 제일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다른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인천의 환경개선이나 복지,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특별주민세 제정시의 기금액수별로 본 결과 기금을 낼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제일 낮았다. 이 결과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년10만원이내를 기부하겠다는 경우에도 낮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기부금액을 더 내려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변수의 Eta와 Beta값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음은 응답자들이 인천시민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응답을 가지고 본 것이다. 인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인천정체의식지수 또는 인천에 대한 정체성이 높았으며(14.39점), 반면에 인천시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는 낮게 나타났다(12.38점). 통계적으로  $P<0.01$ 수

〈표 4〉 다중분류분석표 - 전체 응답자

총평균=13.10\*\*

변수	구 분	N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Dev'n	Eta	Dev'n	Beta
성별	1. 남자	350	.31	.12	.12	.05
	2. 여자	165	-.66		-.26	
나이	1. 20세이하	199	-.91	.14	-1.94	.28
	2. 20-29세	110	.20		.28	
	3. 30-39세	157	.42		.75	
	4. 40세 이상	129	.16		.64	
결혼	1. 미혼	208	-.20	.04	.67	.15*
	2. 기혼	307	.13		-.46	
수입	1. 2천만원미만	175	.63	.14	.53	.12*
	2. 2-3천만원	186	-.09		-.04	
	3. 3-4천만원	99	-.41		-.40	
	4. 4천만원 이상	55	-.94		-.81	
직업	1. 전문·관리직	98	-.58	.17	-.41	.08**
	2. 사무직	245	.55		-.11	
	3. 판매·서비스·생산·농업	45	.66		.38	
	4. 미취업(학생·주부)	127	-.85		.39	
생활수준	1. 중상이상	56	-.15	.03	.59	.06
	2. 중중	253	-.09		.01	
	3. 중하이하	206	.15		-.17	
교육	1. 고교이하	271	.17	.13	.27	.12*
	2. 전문대	75	.78		.44	
	3. 대학이상	169	-.63		-.63	
기금여부	1. 의향없음	156	-.59	.13	-.46	.12*
	2. 년1만원 이내	182	.07		-.08	
	3. 년5만원 이내	127	.66		.75	
	4. 년10만원 이내	39	-.23		-.32	
	5. 년10만원 이상	11	.45		.28	
인천시민 이관점	1. 부끄럽게 생각함	21	-.72	.22	-.32	.16*
	2. 그저 그렇다	344	-.52		-.39	
	3. 자랑스럽게 생각함	150	1.29		.93	
인천의 의미	1. 고향 및 마음붙이고 살 곳	379	.30	.13	.10	.04
	2. 떠나고 싶음	136	-.85		-.27	
Multiple R Squared						.117
Multiple R						.343

노트 : \*은 P < 0.05, \*\*은 P < 0.01 수준을 나타냄

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Beta값은 0.16으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즉,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체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이 응답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도시인가를 분석하였다. 인천이 '고향과 같이 마음을 붙이고 살만한 도시'로 생각하는 경우(13.40점)가 '떠나고 싶은 도시'로 생각하는 경우(12.25점)보다 더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응답집단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고, 다른 독립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는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특성이 교육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느낄수록,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에 종사할수록 인천에 대한 사랑지수 또는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이며, 연수입이 2천만원미만, 판매·서비스·생산직 종사, 고교이하의 교육수준이며, 인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인천에 대한 정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자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보다 높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을 내려는 사람일수록 인천에 대한 정체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이상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C-2. 시민단체 응답자

다음은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를 알아 본 것이다(〈표 5 참조〉). 총평균은 13.15이며, 분석에 사용된 모델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전체 설명변량은 15.3퍼센트이며 설명된 변동량(Explained Sum of Squares)은 445이며, 설명안된 부분(Residual Sum of Squares)은 2,474이다.

전체응답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나이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에 나타난 정체성차이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은 사랑지수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소속의 응답자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더라도 종속변수와 결혼여부 변수간의 단순관계에서는 미혼자가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사용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는 오히려 미혼자(14.82점)가 기혼자(12.74



〈표 5〉 다중분류분석표 - 시민단체 응답자

총평균=13.15\*\*

변수	구 분	N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Dev'n	Eta	Dev'n	Beta
성별	1. 남자	173	.26	.13	.15	.07
	2. 여자	57	-.80		-.46	
나이	1. 29세 이하	56	-.28	.09	-.99	.17
	2. 30-39세	82	-.24		.07	
	3. 40세 이상	92	.38		.55	
결혼	1. 미혼	45	-.45	.06	1.67	.23*
	2. 기혼	185	-.11		-.41	
수입	1. 2천만원미만	72	.11	.11	.26	.11
	2. 2-3천만원	80	.31		.03	
	3. 3-4천만원	53	-.68		-.64	
	4. 4천만원 이상	25	.13		.50	
출생시	1. 인천	64	-.21	.04	-.50	.09
	2. 인천 외	166	.08		.19	
생활수준	1. 중상이상	18	-.43	.06	-.50	.08
	2. 중중	114	.20		.27	
	3. 중하이하	98	-.15		-.23	
교육	1. 고교이하	89	.89	.21	.75	.20**
	2. 전문대	38	-.07		.37	
	3. 대학이상	103	-.74		-.79	
기금여부	1. 의향없음	77	-.32	.09	-.10	.10
	2. 년1만원 이내	73	.16		-.15	
	3. 년5만원 이내	56	.37		.55	
	4. 년10만원 이내	19	-.47		-.74	
	5. 년10만원 이상	5	.25		.47	
인천시민 이란점	1. 부끄럽게 생각함	13	-.46	.24	-.05	.22**
	2. 그저 그렇다	165	-.46		-.45	
	3. 자랑스럽게 생각함	52	1.56		1.45	
인천의 의미	1. 고향 및 마음붙이고 살 곳	157	.20	.08	.01	.01
	2. 떠나고 싶음	73	-.44		-.03	
Multiple R Squared						.153
Multiple R						.391

노트 : \*은 P < 0.05, \*\*은 P < 0.01 수준을 나타냄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미혼의 젊은층들의 미래 인천에 대한 소망이 응답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재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결혼여부변수가 갖는 Eta값은 0.06인데 Beta값은 0.23으로 4배가 증가하였다. 그만큼 이변수의 설명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미혼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성별, 나이, 생활수준, 교육, 출생지 등을 고려할 때는 인천정체의식지수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소속 응답자들의 수입정도와 생활수준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면 나타난 결과는 상호 상충되어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아니었다. 응답자의 출생지가 인천인가 아닌가에 따른 인천정체의식지수에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태어난 응답자보다도 인천이외의 지역이 출생지인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과 인천사랑지수 또는 정체성간에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Beta값도 0.20이다. 인천의 문화복지환경을 위한 특별기금기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은 인천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길수록 이들의 정체성도 유의성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수의 Eta값과 Beta값은 각각 0.24와 0.22였다.

대체로 시민단체에 속한 응답자들은 미혼이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인천시민이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인천에 대한 사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C-3 공무원 응답자

다음표는 공무원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다중분류분석한 것이다(〈표6〉 참조). 총평균은 13.72점이고, 분석모델에 대한 유의수준은  $P<0.01$ 수준이며, 이모델로는 20.7퍼센트의 총변량이 설명되며 설명된 변동량은 624이고 설명안된 변동량은 2,389이다.

공무원응답자의 경우에도 남자이며, 30대이고, 미혼이며, 출생지가 인천이외의 지역이며, 생활수준이 중간이하이며, 인천이 마음붙이고 살 곳이며, 인천시민이란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인 경우에 인천사랑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변수의 분석에 나타난 결과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대체적

〈표 6〉 다중분류분석표 - 공무원 응답자

총평균 = 13.72\*\*

변수	구 분	N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Dev'n	Eta	Dev'n	Beta
성별	1. 남자	128	.09	.03	-.12	.05
	2. 여자	50	-.22		.31	
나이	1. 29세 이하	56	-.13	.14	-.09	.10
	2. 30-39세	79	.58		.39	
	3. 40세 이상	43	-.91		-.61	
결혼	1. 미혼	47	.15	.02	.74	.11
	2. 기혼	131	-.05		-.26	
수입	1. 2천만원미만	79	.93	.29	.47	.25**
	2. 2-3천만원	60	-.02		.33	
	3. 3-4천만원	30	-1.19		-.69	
	4. 4천만원 이상	9	-4.05		-4.04	
출생시	1. 인천	64	-.21	.04	-.50	.09
	2. 인천 외	166	.08		.19	
생활수준	1. 중상이상	8	-.84	.11	-.97	.07
	2. 중중	77	-.42		-.14	
	3. 중하이하	93	.42		.20	
교육	1. 고교이하	85	.62	.28	.45	.21*
	2. 전문대	36	1.14		.90	
	3. 대학이상	57	-1.65		-1.23	
기금여부	1. 의향없음	45	-.65	.16	-.67	.17*
	2. 년1만원 이내	67	-.08		-.18	
	3. 년5만원 이내	47	.86		.79	
	4. 년10만원 이내	16	-.72		-.28	
	5. 년10만원 이상	3	1.95		3.17	
인천시민 이관점	1. 부끄럽게 생각함	3	.95	.17	-.32	.14
	2. 그저 그렇다	92	-.69		-.56	
	3. 자랑스럽게 생각함	83	.73		.64	
인천의 의미	1. 고향 및 마음붙이고 살 곳	152	.22	.13	.04	.02
	2. 떠나고 싶음	26	-1.26		-.22	
Multiple R Squared						.207
Multiple R						.455

노트 : \*은 P < 0.05, \*\*은 P < 0.01 수준을 나타냄

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응답자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수입변수, 교육변수, 그리고 문화복지 등의 특별기금기여변수였다. 즉, 공무원들은 수입이 낮을 수록, 고교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천문화복지를 위한 기금을 많이 낼려는 경우에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무원 응답자중에서 상대적으로 수입도 많고, 대학이상의 고등교육도 받은 소위 있는 계층의 응답자들은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없는 계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오히려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 C-4. 학생 응답자

마지막으로 학생응답자들만 따로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표7 참조). 총평균은 12.30점이며, 분석모델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모델로 설명되는 총변량은 28.8퍼센트이며, 설명된 변동량은 454이고 설명안된 변동량은 1,123이었다. 학생인 경우는 아버지의 직업과 주거형태에 대한 변수를 결혼변수와 교육변수 대신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인 경우는 남학생이며, 인천이 출생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정체의식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외의 변수들에서는 수입이 연평균 2천만원이하로 제일 낮은 경우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종인 경우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천이 고향이거나 고향과 같이 마음을 붙이고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인천정체의식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표 7〉 다중분류분석표 - 학생 응답자

총평균=12.30\*\*

변수	구 분	N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Dev'n	Eta	Dev'n	Beta
성별	1. 남자	64	.72	.21	.47	.14*
	2. 여자	58	-.80		-.52	
나이	1. 20세 이하	120	-.05	.12	.06	.14*
	2. 20세 이상	2	3.20		3.90	
수입	1. 2천만원미만	31	1.06	.22	1.11	.23
	2. 2-3천만원	51	-.75		-.38	
	3. 3-4천만원	17	.70		.67	
	4. 4천만원 이상	23	-.30		-1.15	
출생지	1. 인천	60	.62	.17	.63	.17*
	2. 인천 외	62	-.60		-.61	
생활수준	1. 중상이상	31	.70	.14	.74	.16
	2. 중중	72	-.07		-.03	
	3. 중하이하	19	-.87		-1.09	
주거형태	1. 자기집	48	.41	.09	.18	.04
	2. 전세, 월세	74	-.27		-.11	
기금여부	1. 의향없음	35	-.52	.10	-.50	.12
	2. 년1만원 이내	51	.29		.18	
	3. 년5만원 이내	27	.04		.54	
	4. 년10만원 이내	6	.20		-.40	
	5. 년10만원 이상	3	.37		-1.20	
아버지 직업	1. 전문직	18	-.13	.30	.22	.25
	2. 관리직	37	.35		.32	
	3. 사무직	24	.37		.27	
	4. 판매직	16	-1.73		-1.65	
	5. 서비스직	7	.85		.37	
	6. 생산직	15	-1.03		-.85	
	7. 농어민	1	5.70		3.23	
	8. 미취업(학생, 실업)	4	2.95		2.74	
인천시민 이관점	1. 부끄럽게 생각함	5	-2.10	.26	-2.23	.16
	2. 그저 그렇다	101	-.25		-.04	
	3. 자랑스럽게 생각함	16	2.20		.93	
인천의 의미	1. 고향 및 마음붙이고 살 곳	81	.56	.22	.33	.13
	2. 떠나고 싶음	41	-1.10		-.65	
Multiple R Squared						.288
Multiple R						.537

노트 : \*은 P < 0.05, \*\*은 P < 0.01 수준을 나타냄

### 3. 결론

정체성은 결국 우리가 “구성” 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구성된 것을 가지고 문화프로 그램속에서 자꾸 확산시켜가야 될 것이다. 인천의 일반인이 느끼고, 숨쉬고, 삶 지향적이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천의 정체성을 객관적인 역사·문화유산속에서 찾되 자칫 잘못하여 역사찾기운동이나 문화전통찾기운동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의 정체성은 고식적이고 퇴폐적이기 보다는 동북아시대에 발맞추어 무언가 성취적, 진취적이며 발전지향적인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천의 정서도 보다 큰 스케일로 가야할 것이다.

새로운 인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이종구, 1997). 첫째, 인천의 역사, 전통, 풍속 등의 보전과 전승의 기본적인 바탕위에 새롭게 표현하는 문화적 스펙트럼의 필연성이 전승에 그치지 보다는 창조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문화단위 통합보다는 역사유적과 문화시설에 따른 지역별, 권역별 기초단위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셋째, 지향 방향을 서울로 향하지 말고 “황해를 향하여”로 바꾸어 본다. 넷째, 양적 개발보다는 문화환경중심으로 인간적인 속도의 도시발전을 추구하여 본다. 다섯째, 지역의 정체성으로부터 세계화로 지향점을 찾아 경제산업화된 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품격있는 문화도시로의 국제도시 면모에도 치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인천하면 1)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2)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3) 인천의 특성은 무엇인가?, 4)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속에서 공통적으로 두드러진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정체성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인천지역문제에 식견있는 분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민속학적 접근 방법과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일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 접근방법은 위의 분석결과표들에서 알 수 있었듯이 각 독립변수간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나타난 결과들을 참작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정체성을 재창조하기 위한 정책활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의문들은 다음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인천의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체성은

“Doing Culture”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막상 찾으려고 하면 <표2>와 <표3>에서 보듯이 쉽사리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이 외지인이 많고(통계청, 1997.9, 16~17쪽 출생지역별 인천인구 참조: 인천 39.6%, 서울·경기 19.8%, 부산·대구·경상남북 8.2%, 광주·전남북 12.3%, 대전·충남 북 13.5%, 이북 및 기타 6.7%), 정주의식이 희박하다는 의미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은 도시로 볼 수 있다. 즉, 여차하면 떠날 수 있다는 의식이 지배하는 불안정한 이동인구층으로 언제나 “뜨내기성향(sojourner)”이 강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인구구성상 특성이 잘 들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정적 일 수도 있고 긍정적 일 수도 있다. 주인의식이 없는 곳이므로 너도 나도 와서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강한 지역특색을 가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특색이 인구구성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타지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는 인천의 개방적 분위기가 인천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만한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병목, 1998).

이와 같이 인천이 갖고 있는 인구구성의 변화가 인천의 정체성 결정요인의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법칙 3가지중에 첫째인 “잡종강세”에 비유된다면, 여러 이질적 요소를 끌어안아온 인천은 이 잡종강세의 원리가 인천사회에 적용되어 오히려 진취적인 활기찬 인천의 모습을 지속시켜 줄 것이다. 그동안 인천인구의 큰축을 형성하여 왔던 이북이 고향인 주민들의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대신 향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유사한 예를 미국사회가 다양한 소수민족을 끌어 안고 발전해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인천시민의 구성비가 ㄱ) 1970년대 이후 공업도시화에 따른 이농인구로 주축을 이룬 영호남인(21%), ㄴ) 해상교통로로 유입된 서산, 태안, 당진을 포함한 충남 북부의 충청인(14%), ㄷ) 6·25전쟁후 웅진반도의 피난민 등(7%), ㄹ) 서울 및 경기도인(20%), 그리고 ㅁ) 토박이 인구(약 40%)로 이들이 서로 비슷한 정도로 분포가 구성되어 지므로 인천은 어느 한 집단이 주축이 됨이 없어 중심도태가 허약하게 되고, 따라서 인천시민의식이나 주인의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만일 남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고착된 지역이고, 인구이동이 없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인천은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주장하는 '황해바다는 맑고 탁함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다'는 "황해불기청탁(黃海不棄淸濁)"과 '바다는 어떤 종류의 물이든 양보하지 않고 받아드린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인천의 바다가 강물, 수돗물, 하수물, 빗물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상태 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다가 열려 있을 때는 한반도의 중심위치에 있는 도시로 인천이 한국 제2의 도시로써 힘을 받고 뻗어나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황해가 잠을 잔 지난 50년간의 인천의 위상은 바다가 막힌 도시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천의 바다는 다시 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국교재개,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 현대기업의 황해도 해주지역에 2천만평 공업단지조성, 세계적인 미디어벨리조성, 경인운하건설, 항만확장 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인천의 역할이 커지고 인천이 다시 깨어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여 인천시민들은 주위 사람이 즐거워하고 먼데 사람이 찾아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풍수지리설을 통하여 내려오는 인천의 지형은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멈춰서서 말로 변하였다'는 "비룡마화상(飛龍馬化相)," 또는 '금방 뜨거워 쪼다가 곧 식어버린다'는 "인두"형국이라 인천이 배출한 인물과 재산가는 중도 좌절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김양수, 1998, 218-221쪽). 이러한 속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그럴듯한 경험적 사례를 비류백제의 실패, 고려시대 인주 이씨의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80년간의 세도 후 몰락, 고려 및 이조시대의 경인운하개발 좌절, 근대 인천출신 정치인의 중도하차, 인천을 시발로한 몇몇 기업의 실패 등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인천의 지형은 이제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선 강화·옹진군의 인천 편입, 용유도와 영종도 연결지에 신국



제공항건설과 연륙교를 통한 육지와와의 연결, 동아매립지, 송도신도시건설을 위한 매립 등이 인천지형의 면모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인천은 아마도 “비룡승천상(飛龍昇天相)”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일본의 대망 소설 발표 등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인천도 좀더 큰 틀에서 생각하여 우리의 포부를 심대하게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구상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 하여야 할 점은 너무 인천이라는 Inner-Circle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배제시켜야 될 것이다. 인천도 우리나라 전체의 일부지역이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속의 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접근하되 일회성으로 끝내기 보다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만 그래도 효과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려면 인천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관성있게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양수(1998), 《인천개화백경》, 도서출판 화인재.
- 김태현, 정환영, 진영환, 주성재, 김선옥, 김동희(1998.8), 《1970 - 2020 시도별 인구추계》, 통계청.
- 이선이, 김병관(1996), “지역정체의식과 생활실태,”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기지역연구실, 오름 지역연구총서 2, 오름 도서출판, 1996, 345 - 385쪽.
- 이윤희(1997), “인천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 이종구(1997.12.), “인천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토론회”, 다인아트. (미간행)
- 인천녹색연합(1998),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인천녹색연합.
- 인천광역시(1997), 《삶의질 높이기 시민의식 조사분석결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1996), 《시정백서》,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1997),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보고서 : 문화예술/사회복지》, 한국갤럽.
- 인천광역시(1998a), 《2020인천드림 I & II》,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광역시(1998b), 《2020인천드림계획 여론조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1998), 《21세기를 향한 강화군 장기종합발전방향》, 최종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직할시(1988), 《향토인천》, 인천직할시.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8), 《인천시민의식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
- 전상인(1998.12.), “춘천 소프트,” 1998년 후기 사회학회발표논문, 한양대학교.
- 전성표(1998), “산업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 한국사회학회 전기논문발표회.
- 최병목(1997), “인천광역시의 인구변동추세와 정책방향,” 1997년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세미나 : 동북아시아 우리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3 - 84쪽.
- 최병목(1998), “인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미간행)
- 최진호(1996), “인구구조와 사회적 특성,”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아주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경기지역연구실, 오름 지역연구총서 2, 오름 도서출판, 39 - 62쪽.
- 통계청(1997.9.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4권 : 인구가동편, 통계청.
- 한국갤럽(1997),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Garfinkel, Harold (1967), *Studies in Ethnomethodology*, Cambridge(UK) : Polity Press.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 Polity.
- Hobsbawm, Eric, (1992) "Introduction : Inventing Traditions," In W. Hobsbawm & Lunt, Peter K. and Sonia M. Livingstone (eds.), *Mass Consumption and Personal Identity*,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pp. 24 - 25.

## A Comparative Study of the Local Identity among Incheon Citizens

Byoung - Mohk Choi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ding of Incheon's identity. The empirical method and ethnomethodological approach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Among members of citizen movement groups, government workers, and students who are living in Incheon were selected as 613 samples using a purposive sampling method.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 and cross-tabulation method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study of identity in an area is important in terms of providing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n a reg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citizens. The scores of the index about Incheon's identity are quite low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to all three groups showed the middle position of the scores from the identity index.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emale, unmarried single, 30 years or more, lower income groups showed relatively higher identity index scores than other counterparts. And professional, administrative, clerical workers' identity index scores were higher than people who work at sales, service, and agricultural sectors. Respondents with 2 years of college or more, with intentions to donate special monies for cultural, social welfare, & environmental reform, persons who want to live in Incheon for a long period of time equipped with a stronger identity index.

For the character of Incheon's identity, there are "no identity," "making it from now on," "capacity or broad-minded city," "vanguard pioneer," "displeased," "diversity/multiplicity of the city," "defense spirit from foreign invasion," "entrance city from the world" in that order. Therefore, it is hard to say what exactly Incheon's image is in a single word. However, Incheon can be characterized as "a diverse city with capacity" to live together without any serious conflicts among citizens who come

from Seoul, Kyunggi-Do, Chungchung-Do, Chunla-Do, Kyungsang-Do,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hese facts imply that Incheon should continue to pursue this image as “a diverse city with capacity” as an identity pursuing towards “world city” and “hub city of North East Asia.”

Key words : identity, identity index, local patriotism, symbolic community,  
diverse city